

“韓國語史 研究와 傳統音樂”에 대한 토론문

황선엽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sy@snu.ac.kr

스기야마 교수의 이 발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어 성조사 연구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글의 모두에 “음운사 연구에서 지난날의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악센트, 성조의 실현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제시한 것처럼 간접적이거나 옛날의 성조를 오늘날의 가곡창을 통해 직접 듣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문헌을 통해 국어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소망이 바로 당시의 언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소망이 조금은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3장에 제시한 것처럼 한국어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국악사 연구에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나 국어사 연구에서 종래 다루지 않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용들을 천착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는바 국어사 연구의 지평을 넓힌 중요한 사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성조는 물론이거니와 국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토론자가 이 글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는 역부족이어서 글을 읽으며 떠오른 단상 몇 가지를 지적해 두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連音標’에 대해 “‘소리의 高度(Pitch), 進行, 長短, 그리고 其他 音樂的인 表現’(宋芳松, 1967:3)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하였는데 송방송 선생의 견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連音’이란 용어와 다소 의미 차이가 있어 ‘連音標’란 용어가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연음표’ 대신 다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가 한다.

문법사 연구의 자료로서 선어말어미 ‘-오/우-’의 존속 시기를 시사하는 사례로 ‘갈[]길 몰나 흐노라’에 ‘갈’이 상성으로 실현되는 예를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어말어미 ‘-오/우-’가 이 시기까지 쓰였다고 볼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문법 형태의 사용은 전체 패러다임에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 문법 형태가 제대로 기능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설명은 다소 문제기 될 수 있다. 즉 특정 형태나, 환경, 문맥에서만 출현한다면 그것은 화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법 형태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글의 주장을 받아들여더라도 선어말어미 ‘-오/우-’는 화자 주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관형사형 어미 앞에서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 서술어의 주어가 아님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바 단순히 선어말어미 ‘-오/우-’라고 할 것 이 아니라 이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二數大葉 선율에 사설의 성조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7세기 중~말엽쯤까지는 성조 체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는데 언어의 변화가 점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16세기 말의 상당수 자료들에서 성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과 17세기 초부터 방점 표기가 전면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이 때문에 이기문, 김완진 선생님이 17세기 초에 성조가 소멸하였다고 본 것이므로)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